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5호 [루게 제23307호] 주제 99 (2010)년 12월 21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모두다 올해의 최후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 기적의 창조자가 되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는데 기여하자

평양 시내 여러 단위에서 켈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켈기모임이 20일 12월 7일 공장, 선홍식료공장, 향만루대중식당, 보통강백화점에서 진행되었다.

12월 7일 공장 종업원들의 켈기모임에서는 초급당비서 김운철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공정희, 기사장 채인철, 직장장 송희순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위생용품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미 마련된 생산도태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위생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실리주의 원칙에 맞게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

로세우고 기술관리, 설비관리 에 큰 힘을 넣어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홍식료공장 종업원들의 켈기모임에서는 분초급당비서 최순옥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리희숙, 부원 허명희, 로동자 고정훈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짧은 기간에 CNC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식료공장을 훌륭히 개건확장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생산에서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명시하시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생산과정의 현대화를 계속 다그치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맞

추고 영양가 높은 갖가지 식료품 생산을 더욱 늘임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향만루대중식당 종업원들의 켈기모임에서는 분초급당비서 김영희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최옥순, 로동자들인 리금철, 송옥녀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식당이 봉사활동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꾸려졌다고 하시면서 판리운영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며 로리의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는 한편 위생문화생활을 철저히 지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나라의 음식문화발전 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

하였다.

보통강백화점 종업원들의 켈기모임에서는 지배인 정명숙의 보고에 이어 부원 리정옥, 기사 리철진, 로동자 조설경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백화점이 또 하나의 현대적인 봉사기지로 일떠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상업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자각을 지니고 말은 본분을 다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

금속공업부 부문 당 조직들에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뜻깊게 맞이한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 근로단체 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돌격전 이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 총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 사람들의 심장속에 혁명의 불은 피, 애국의 더운 피가 끓끓 끓어번지게 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 부문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총동원력이 벌어지는 전투현장에 배낭을 메고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 총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함으로써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일게 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 부문 당조직들에서는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계기로 양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총동원력으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당일군들은 련합기업소아래 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철강재생산에서 다시한번 혁명적업장을 일으키도록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용광로직장 2호용광로와 소결 1, 2직장에 들어간 당위원회 책임일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에 찾아오시어 대고조의 양장에서 내달리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19만t능력을 뛰어넘어 27만t의 선철생산으로 조선사람들의 본래를 보여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과 기백으로 올해전투를 빛나게 장식해나가고자 노력하고 고무추동하였다.

그러하여 련합기업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용광로와 소결로 보수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생

산에 들어가 철강재생산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자재와 원료보장을 담당한 내화물직장과 석회배소직장에 내려간 당위원회 당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의 불길을 계속 힘있게 지켜올리도록 고무추동함으로써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최후돌격전으로 부르는 조직정치사업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조직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선전선동부 당일군들은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하는 주원로직장에 내려가 내부예비를 총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대중을 철강재생산전투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1강철직장과 합금철직장, 전기수리직장, 보수직장에 내려간 당위원회 당일군들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전투에 당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혁신적으로 벌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그러하여 전투장마다에서는 있는 설비와 자재, 원료를 가지고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당일군들이 높이 세운 철강재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며 하면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5월 17일공장에 내려간 당위원회 당일군들은 당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혁신적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생산에서 계속 양양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일군들의 사업기공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군시대 당일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분발해나선 금속공업부 부문 당일군들의 힘 있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철강재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본사기자 최일호

## 세계는 누가 침략전쟁을 즐기는 도발자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우리 군대의 강력한 경교와 내외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피뢰군부호전관들은 지난 연평도포격전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은 대신 20일 14시 30분부터 무려 한시간동안 예민한 조선선해 연평도입에서 수천발의 총포탄을 발사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미제와 피뢰군부호전관들이 감행한 이번 군사적도발은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파산에 직면한 대아시아정책과 대조선전략을 수습해보려는 간교한 음모의 산물이다.

그것은 또한 무지와 무능으로 남은 임기마저 채울수 없을 정도로 전면적인 통치위기에 직면한 한 피뢰당국과 지략된 피뢰군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선전용도발이다.

특히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2차, 3차의 대응타격이 두려워 계획했던 사격

수역과 탄착점까지 슬그머니 변경시키고 지난 11월 23일 군사적도발때 쓰다남은 포탄이나 날리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낸 천하비경쟁이들의 유치한 불량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혁명무력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비렬한 군사적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

세상에 선포한 한계가 없는 우리 혁명무력의 2차, 3차의 강위력한 대응타격은 미국과 남조선피뢰호전관들의 본거지를 청산하는데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이며 누가 진짜 전쟁도발자인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주제 99 (2010)년 12월 20일 평양

### 함흥지구 공장, 기업소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재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야머 이미 마련되어있는 경제적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창건 65돐을 승리적으로 대추전으로 경축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함흥지구 공장, 기업소들의 당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신심과 박판에 넘쳐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리며 계속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종합린 자료에 의하면 통성기계련합기업소와 설비조립련합기업소,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을 비롯한 함흥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년간계획을 두세달이상이나 앞당겨 수행한 기세드높이 올해전투결속을 위한 투쟁을 총기차게 벌리고있다.

함흥제약공장, 함흥제강공장, 함흥산림건설사업소의 당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 자랑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새 대상건설 및 개건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함흥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시비년도 비료생산과 함께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공정 1개월공사가 다그쳐

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소한의 추위도,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서 올해에만도 여러차례나 함흥지구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과 개건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함흥남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으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함흥지구의 중요공장, 기업소당 조직들에서는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기쁨으로 경축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고조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켜올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탄되고있다. 함흥가스화대상 1개월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함흥비료련합기업소와 설비조립련합기업소, 단련광업건설련합기업소, 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 도탐사관리국, 흥남구역, 해안구역, 홍덕구역의 공장, 기업소, 도급기관들과 구역들에서 동원된 당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에

결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비료생산공정건설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가스화대상건설과 수송부도건설, 설비, 장치물체작과 조립 등이 힘있게 벌어져 공장장의 면모는 날을 따라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새 대상건설과 개건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조립련합기업소와 청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카바이드 전기로현대화공사와 원료장석회로건설, 성형직장 분탄공정건설, 수평방사직장과 섬유직장개건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함남제약공장과 함흥산림건설사업소의 당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혁명적근인성으로 이양해 풀고나가면서 생산과 현대화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와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과 성형강전기공장의 당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흥남가스화대상공장을 비롯한 건설장들에 대상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해 주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다. 함흥모방직공장, 함흥영애군인수지이용품공장, 함흥구두공장, 함흥제사공장, 흥남구두공장을 비롯한 함흥지구의 경영기업소들에서도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 대고조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

각지에서 녀맹돌격대활동 활발, 수만명의 녀맹원들이 중요부문에로 진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전국각지의 녀맹원들이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동맹장령 65돐을 뜻깊게 맞이한 각지 녀맹원들의 혁명적열의는 올해공동사업에서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자료를 의하면 올해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녀맹돌격대조직되어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중요부문에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중요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 나간 녀맹원들은 혼신은반과 토랑처리, 버럭처리 등으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지켜선 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도와주었다.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각지 협동농장들과 경공업공장들에 나간 녀맹원들은 수백정보의 새명차기, 수백만 t의 유기질비료생산, 수십만점의 인민소비품생산 등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녀성동맹조직들과 전체 녀성들앞에는 격동적인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한창수해비루를 더욱 힘있게 띠고나가야 할 무거운 도임에로운 혁명임무가 나사고 있습니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올해 온 나라 전체 녀맹원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영예로운 참전자, 위훈자들로 키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정조부터 힘있게 벌렸다.

위원회에서는 당창건 65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는 올해전투명예적인 토의사업을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녀맹위원회들과 초급녀맹조직들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3. 8국제부녀절 100돐을 계기로 진행된 전국녀맹일성자회의가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녀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였다. 또한 중앙과 도녀맹위원회일꾼들로 강력한 지도력량을 무어 애매단위녀맹조

직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위원회는 지도밑에 각지 녀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대고조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로동계급을 고무추동하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전국적으로 1 000여개의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서 녀맹원들의 화선식경제선동활동이 진행되고있다.

녀맹중앙에술선전대에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은물광산,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들들은 전투장들에서 힘있는 예술선동활동으로 흥공에 떨쳐나선 근로자들과 녀맹원들을 로력적위훈으로 불러일으켰다.

전투명예적으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며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정주시, 은천군녀맹위원회를 비롯한 각 시, 군녀맹위원회들에서는 초급녀맹조직들이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올해 수만근의 흥남부문을 싣고 많은 불누에고치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강동군을 비롯한 각지의 녀맹원들은 녀맹원들속에 들어가 교양사업을 앞세우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많은 면적의 목화밭을 조성하고 정성껏 가꾸었다.

황해남도의 녀맹원들은 수천정보의 땅을 맡아 정보당 수천 t의 거름과 유기질비료를 내어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건설장들에 나간 녀맹원들속에서도 대중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평양시의 구역, 군녀맹위원회들에서는 초급녀맹조직들을 불러일으켜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과 공장, 기업소개건공사장들에서 막대한 판과 도랑처리, 도로정리 등 큰 작업대상들을 맡아 해제기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흥시 흥덕구역녀맹위원회에서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 나가 카바이드생산공정을 개건하면서 나서는 작업과제들을 스스로 맡아 해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녀맹조직들에서는 최전방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견소를 비롯한 중요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림현숙

이 나날에 황해북도녀맹위원회를 비롯하여 회선시, 해산시, 함흥시 등 많은 시, 군녀맹위원회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아안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강령속에서도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창조로 들끓는 강성대국건설장마다에서 힘과 열정과 지혜를 바치는 나날에 수많은 녀맹원들이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들로 자라났다.

평양시, 함경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수많은 녀맹원들이 창조와 로동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결심을 안고 공장, 기업소들에 진출하였다. 뜻깊은 올해 공장, 기업소들에 진출한 녀맹원들은 수만명에 달하며 그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한 올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추동하는 힘 있는 전투대로 자라난 각지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의 마음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전투장들마다에서 더욱 세차게 불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림현숙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한 그 기세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 평양방직공장에서- 선 충 혁 적을



#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이해 우리는 박자에 박자를 가하고 기적이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달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헌정지도와 더불어 강성대국을 두드리는 소리가 도처에서 울려오는 속에 또 하나의 희한한 화폭이 우리를 무한히 흥분시켰다.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나간다는 구절에 담겨 신창의 양어장에서 무리지어서 우리 장군님의 구상이 1년 남짓한 기간에 이 룰연만에 기적같은 현실로 펼쳐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 날 몸소 이듬지어주신 《통정어》머무개가 130kg이나 나가는 철갑상어를, 철색송어, 산천어를 비롯한 수만마리의 고급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다.

단백질이가 풍부하며 어종별에 맞추어 수질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CNC제어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현대적인 통정양어장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다.

이곳을 돌아본 외국인들은 이런 멋쟁이양어장은 인민을 위하여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데서 일해보고싶다, 조선간에는 철갑상어생산국으로 편편을 쥐게 될것이라고 토로하였다.

이곳 양어장의 한복판에는 우리 인민군인들이 새겨놓은 글씨가 있다.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우리가 향유하게 될 문명이 어떤것

이며 우리가 누리게 될 천만가지 행복이 무엇인지 바다로 나가는 철갑상어가 보여주고있고 이 글씨가 증명해 주고있다.

철갑상어, 그것은 대고조의 번과 함께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이름이어서 더욱더 정다운고 그것이 바로 세계를 향해 날으는 우리의 리상과 문명의 상징이기에 그로록 자랑스러울것 아니라.

철갑상어는 그 양어기술이 복잡한 것으로 하여 발전된 몇개 나라들에서만 독점하고있던 물고기여서 대량양어에 성공한다는것은 극히 어려운 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고인 이 철갑상어를 우리의 의지대로 길들여 대량양어는 물론 바다양어에서도 대성공을 이룩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철갑상어가 우리의 물, 우리의 토양, 우리의 기온, 우리의 양어방식에 의하여 조건의 것으로 조선의 바다에 자기의 영원한 주소를 정하였다.

지구상에 《조선의 철갑상어》가 태어났다. 이는 단순히 양어에서의 획기적인 전환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를 해도 최첨단수준에서 하려는 조선의 리상과 남들이 하는것은 우리도 할수 있으며 남들이 못한것도 우리는 한다는 민족적존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과 세계를 향해 비약하는 조선의 모습이 있다.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이 돌파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듯이 지난해에는 성상의 로동계급이 조출연하는 김철의 로동계급이 주체생신체계를 완성하고 그 생산을 높은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주체화의 위대한 승리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이제는 모든 부문, 모든 생산공정들이 CNC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었고 최첨단을 돌파하며 통정식료공장에 로동계급이 만든 우리의 고급간장과

갖가지 맛을 내는 소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있으며 《삼일포》의 불길과 타고 온 나라 곳곳에 일떠선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장과 지방산업공장에서부터 그 지방고유의 특산물들이 생산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은 위대한 장군님을 떠나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의 노래소리는 그의 애국과 헌신의 세계를 떠나 울릴수 없다.

평온한 날 찾아오신 걸음이라면 우리 가가 이따기다 눈물 젖었다는가. 원수들이 각급과 전정의 불구름을 몰아오며 군사연습에 광증을 부리고 있을 때 최전연이나 다름없는 풍운양을 찾아오며 세한 바다바람과 흠뻑 젖은 신발은 아랑곳하지 않고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어 주 위대한 장군님.

우리 다시 물고기때에 비견 우리 장군님의 소원과 함께 그이의 거룩한 발자취를 가슴에 안아보다.

지구상에 철갑상어를 찾아오며 자신에게 모으려는 물고기가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신장양어장에서는 철갑상어때가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철색송어때가 인민에게로 간다는 말을 하고있고,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럽잖은 유족과 병환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고 있다 더 부럽지 않다고 하신 그날의 응성은 세월이 가도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한 행복의 메아리로 울릴 것이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좀 어렵더라도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때를 위하여 시미 신창지구에 대규모의 양어기지를 건설하게 하시고 철갑상어를 비롯한 고급물고기를 우리의 토양, 우리의 물에서 적용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해주셨으며 그것이 성공하였을 때에는 바다양어에 대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입니다.

우리 인민들이 철갑상어를 비롯하여 모든 명료리들을 맛보게 하시려 대동강기슭에 로리전문식당을 건설해주시고 백만장자들이나 향유할수 있는 복락을 누리게 하여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역사를 전하며 얼마나 가슴뜨거운 화폭들이 펼쳐졌는가. 얼마전 북방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무산식료공장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현대화된 설비들에서 식료품이 줄줄이 생산되고있음을 두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는 일꾼들에게 우리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볼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 공장에서 만든 식료품을 인민들에게 풍족하게 공급하고있다는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었다.

정녕 계절에는 겨울과 찬바람이 있을수 있어도 인민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사랑은 언제나 봄날이듯 해빛만이 넘친다.

우리 장군님의 리상은 곧 인민에게 안겨질 최첨단의 문명이며 천만가지 행복이다.

그 리상을 하나하나 이 땅위에 꽃피우시며 우리 장군님의 향유되길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미래에 대한 환상, 더 활짝 피어날 인민들의 웃음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얼마전에는 창성마을을 찾오시어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퍼주시고 오늘도 멀고먼 함흥으로, 평壤으로 또 김철로 강령군을 이어가고계신다.

저 하늘의 태양의 빛과 열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세계와 더불어 어제는 고기때가 강으로 나갔고 오늘은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고있으며 머지않아 강대국승리의 만세소리는 반드시 울리게 될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치시어 이룩해놓으신 경제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있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마련된 최

첨단기술과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자기의 손으로 세계적인 우리의것을 보란듯이 창조하여 조국안에 내놓는 용감한 선구자, 대단한 실천가가 되라.

시대가 찾는 오늘의 애국자는 바로 자기 단위, 자기 부문에서 자기의 원료와 재물을 가지고 세계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세계적인 훌륭한것들을 다 자기의 실정에 적용시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조국의 부를 늘이는 사람이다.

그대가 일꾼이라면 세계적인 안목을 키워 모든것을 통이 크게 창조적으로 작전하고 그대가 과학자라면 세계최첨기술을 우리의 현실에 도입하여야 하며 그대가 로동계급이라면 세계적인 창조물을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내기 위해 자기의 지혜와 맘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총질성과 뜨거운 열정, 피라는 헌신은 곧 기적을 낳는다.

조국앞에 자기의 창조물, 자기의 열매, 자기의 생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 조국을 어머니라고 뱃뱃이 부를수 없으며 강성대국에 들어설 권리가 없다.

누구나 행복의 열매를 마련하고 후손만대의 무궁번영의 밑천을 다지기를 위한 오늘을 충진하여 부리가 되고 밀가루가 되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조선이 어떻게 일어섰고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눈부시게 번영하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위대한 사명이 우리 세대의 어깨에 지워져있다.

자연을 길들여 철갑상어의 기적을 창조한 위훈자처럼 누구나 대고 조건건속도에 박자를 가하고 승리의 포성을 편이여 울림시켜 하루 빨리 번영의 대문을 열고 사회주의를 바치시어 이룩해놓으신 경제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있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마련된 최

## 동림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이기때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마땅히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제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속에 동림식료공장의 기초식품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져 짧은 기간에 건축공사가 끝나가던 때였다.

공장에서는 이미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적지 않게 마련해놓았지만 중요설비인 고압보일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아 애를 먹고있었다.

이런 실태를 알게 된 군당책임일꾼들이 군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였지만 초급당비서 파견길동무들 비롯한 공장의 일꾼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보이라설비를 설치하라

문제는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의 인심이 부족하였기였다. 초급당비서는 지체인 리원철, 책임기사 림영철동무들과 함께 기술자들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워 그들이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이끌었다. 일꾼들은 보이라설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에 앞서 이미 세형의 보일러를 도입한 단위들에 대한 참판을 조직하여 배우도록 하고 기술자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마다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 기술자들과의 협의회를 여러차례 조직하였다.

초급당일꾼은 협의외에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곤 하였다.

—공장에서 동무들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보이라설비를 만들 용단을 내렸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떨쳐나선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수 있다.

민을에 넘친 초급당일꾼의 말은 기술자들의 가슴을 새차게 두드렸다.

공무작업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분발하여나섰다. 제반사업에 능한 작업반장과 선반공인 당소포비서는 작업반원들과 한담이러가며 설비제작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용접공 김봉준동무는 건강하지 못한 몸이었지만 자기를 믿고 어려운 용접작업을 맡겨준 당조직의 믿음을 고맙게 여기며 있는 지혜와 열정을 쏟아부었다. 공무작업반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설비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당조직과 집단의 믿음을 생각하며 주저없이 맡겨준 대의의 보이라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계획보다 석달이나 앞당겨 만들어 설치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러하여 종전보다 절반 이상의 석탄을 절약하면서 도 기초식품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하기에 이 공장의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제힘에 대한 믿음은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원천이라고.

본사기자 리종석

## 돌격전의 나팔수

설비조립련합기업소 제관직장 10작업반 선동원 전승복동무

대고조전투에서 돌격전의 나팔수가 되어 대중을 혁신과 위훈에 힘있게 추동해가는 선동원들속에 설비조립련합기업소 제관직장 10작업반 선동원 전승복동무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 당은 수백만 당원들이 선군조선의 빛나는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용맹한 결사대, 적극적인 선봉대, 능숙한 선동대가 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작업반에서 흉남가스화대상공사에 필요한 장치물체제작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라

천 개씩이나 나타나고있을 때 선동원 전승복동무의 목소리가 청청하게 울려왔다.

《자, 동무들, 어서 오세요. 더운물을 한모금씩 마시면 몸이 훈훈해집니다.》

작업반장은 삼시에 활기를 띠었다. 작업반원들은 선동원이 권하는 더운물을 훌훌 불어마시며 음식을 맛있게 들고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작업반장 김병남동무에게는 선동원이 더없이 미덥게 여겨졌다.

함숙생 김동무가 갑자기 걸렸을 때 별식을 해주고 찾아가 인사를 나누어주었다가 하면 며칠전 같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들고나와 작업반원들의 손에 쥐어주던 일들도 눈시울속에서 되돌아왔다.

때로는 절단기를 쥐고 혁신의 불꽃을 날리기도 하고 때로

는 환경과 작업반원들의 구체적인 심리에 맞게 정치사업을 능란하게 벌이기도 하는 그는 불덩어리같은 사람이였다.

이윽고 오늘 전투파대를 어떻게 하나 넘쳐내자고 하는 선동원의 절절한 당부를 안고 다들 일손을 다시 잡았다.

작업반장은 혁신의 분위기로 새차게 달아올랐다.

작업반원들은 흉남가스화대상공사에 필요한 장치물체제작투에 또다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달려붙었다.

엔제인이 함숙생활을 하는 어느 한 동무에게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안겨주기도 하고 그가 알아누웠을 때에는 집에서 정성들여 마련한 음식들과 건강식료품들을 들고 함숙에 찾아간 사실, 함숙에서 생활하는 작업반의 한 동무가 생일을 맞게 되었을 때에는

생일상을 차려주면서 친누이의 심정이 더 오르지 못할 때였다. 군의 일꾼들은 이런 동무들을 받고 내려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새차게 지퍼 올려왔다. 결과 거름생산설비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흉보산비료생산을 내릴 때에도 일꾼들은 원료부 부족을 높이고는 포착하고 군안의 꽃을 다니며 그 원천을 찾아내면서 농장일꾼들을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흉보산비료생산을 계획대로 내밀수 있는 담보로 마련해놓도록 하였다.

경험은 일꾼들이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결사관철하려는 사상적자세를 가지고 일할 때 다음해농사의 좋은 전망을 열어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송창윤



당의 응속에 일떠선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에서 갖가지 식료품이 쏟아져나온다. —정방산 종합식료공장에서— 리진명 찍음

## 다음해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집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수령님의 교시를 지침으로 삼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일단 사업을 포기한 다음에는 똑똑하고 썩지도 않고 썩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농사가 계속되어가고 있던 때였다. 한해농사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당 중앙위원회의 책임일꾼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이미 마련된 생산준비대책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 다음해농사를 분배있게 지을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군안의 일꾼들과 마주앉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다음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였다.

군의 일꾼들이 저저마다 일어나 여러가지 방도들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저수지 바닥파기와 흙을 하고

## 전투적으로 작전하고 내밀어

여러가지 질풍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포전에 내자는 안이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협의회에서는 지력을 높이는 문제를 다음해농사차비의 중심과제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작업반이 반대하고 품이 많이 드는 저수지 바닥파기는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일꾼들이 맡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흙구이,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흉보산비료생산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꾼이 맡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군당책임일꾼은 이 사업을 군안의 일꾼들에게 분담한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군안의 모든 일꾼들이 작업현장에 늘려앉아 모든 일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방법론

## 서 흥 군에서

을 찾아내고 내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로력과 자재, 공구장비, 일제계획을 면밀히 세워 그날제하는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꾼들을 적극 맡아주었다.

일꾼들이 농사일의 주인이 되어 앞장에서 뛰니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군안의 농장들에서 질풍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성과를 거둔 사실을 보고하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꾼은 질풍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지난 시기 지력을 높여 그 덕을 크게 보았다는 화폭형동농장 제1작업반에 내려갔다. 작업반에서는 본조별로 강생이가을견비를 시작할수록 포전의 곳곳에 퇴적장

## 실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연산군 읍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실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유기질비료생산을 위한 투쟁을 하고있다. 유기질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낸 일꾼들은 제7작업반 1분조에서 보여주시는 작업을 본따서 다음 모든 작업반들에게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농장원들속에 들어간 일꾼들은 다음해 알곡생산량을 늘리자면 뛰어나게도 질풍을 일으키기 위하여 유기질비료가 많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제7.1작업반원들이 질 좋은 유기질비료생산을 일어나고있다. 이곳 초급일꾼들은 작업반원들에게

## 기술자들을 아끼고 적극 내세워주어

향해 남도송배전부 초급당위원회사업에서

최근시기 향해남도송배전부에서는 자체로 능력이 큰 변전소를 건설하고 많은 기간에 송전선을 새로 늘어 중요전력공급단위에 대한 단독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전력의 중추선임을 높이고 전압을 훨씬 더 높일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런 성과속에는 자기 단위 기술자들을 대담하게 믿고 내세워주어 나가있는 기술자들의 판로운영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내밀수 있는 담보로 마련해놓도록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생산과 관리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발언권과 사업적위임을 높이고 그들이 사모적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내세워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1월초 어느날이었다. 동송배전부에서는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놓고 협의회를 하였다. 모임에서는 일치하게 이미 진행중이었던 능력이 큰 변전소와 송전선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것을 공동시설과관철을 위한 결의목표로 반영하고 집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건설공사는 반대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신념에 넘쳐 방대한 공사를 결의목표로 반영하고 수행하기로 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몇해전 어느 한 변전소의 변압기만 모두가 신념에 넘쳐 방대한 공사를 결의목표로 반영하고 수행하기로 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이렇듯 당조직의 믿음은 기술자들을 성공으로 힘있게 이끌고 주고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리워오는 위대한 담보였다.

특기기자 리승철

## 기술자들을 아끼고 적극 내세워주어

변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자기 단위 기술자들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로 하였다.

당조직의 믿음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기술자들은 신심을 가지고 변압기개조에 달려붙었다. 당조직에서는 기술자들을 믿고 일감을 맡겼지만 자기 단위에서 멀리 떨어진 변압기개조현장에 나가있는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상당한 관심을 돌리었다. 초급당일꾼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기술자들의 생활조건부터 알아보았고 결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이 잘 일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술자들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여 가족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보살피주었다. 애써 마련한 색다른 부식물을 공급할 때에도 변압기개조에 참가한 기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차례지켜낸것도 그때이상이었다.

당조직의 믿음과 사랑은 기술자들을 성공으로 힘있게 이끌었다. 기술자들도 모두가 결의의지를 다 바치었다. 그리하여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합리적기술적문제를 풀고 변압기능력을 높였을뿐아니라 자체 변전소를 꾸릴수 있는 여러개의 변압기비도 마련하였다.

그나름 송배전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분에 넘친 감사를 바치면서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듯 당조직의 믿음은 기술자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주고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리워오는 위대한 담보였다.

특기기자 리승철



# 자주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휘황한 등대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선과 방침들을 통일애국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는 등대로 심장같이 간직하고 민족번영의 패일을 희망과 락관속에 그리고계셨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내놓으신 통일방침들은 온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통일대헌장이다.》

《바다에 등대되어 배결이 열리듯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통일의 앞길이 열린다.》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침이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반드시 승리의 명마루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

남평의 그 어디에서나 울려나오는 심장의 뛰침들에서 느낀 수 있는 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은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심점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따르는 남평적의 고결한 마음, 그이께서 내놓으신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침에 대한 그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목소리는 참으로 뜨겁고 열렬하다.

통일애국의 웅대한 설계를 펼치주시고 온 민족을 그 실천을 위한 투쟁으로 격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민족번영의 비극의 역사를 끝장내고 통일과 번영의 희망찬 새시대가 반드시 밝아온다는 것이 남조선인민들이 간직하고있는 확고한 신념이다.

이런 확신에 넘친 말들을 들어보자.

연세대학교 부산에서 진행된

《통일에 거는 민족의 희망》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한 통일인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명도자님께서는 거에게 가장 정확한 통일방침을 주시고 민족의 통일운동을 끝까지 이끌고계시며 넓으신 도량과 사랑으로 거께모두를 통일애국의 광장에 세워주신다. 나는 김정일명도자님의 위인상에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수익을 끌어줄수있는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였다. 진실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정치인든, 기업가든, 종교인든, 군인인든 할것없이 모두가 김정일명도자님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격정의 목소리는 광주에서 통일운동가들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울려나왔다. 토론회에서는 통일운동을 더욱 활기있게 벌려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초점으로 되었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민족의 분열사를 놓고 볼 때 김정일명도자님과 같이 갈라진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두고 심려의 나날을 보내시는분은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덧붙였다.

《김정일명도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통일은 조국통일3대헌장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나는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으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우리 민족이 법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통일애국을 밀어붙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구에 사는 한 주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헌장 5대방침에 접하였을 때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조국통일의 구심점이고 통일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명도자이심을 체험시켰다.》라고 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침은 그 어느것이나 다 민족리념이 투철하고 애국애족의 의지가 응결되어 있다. 나는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통일애국의 길에 한복속바치겠다.》고 결의하였다.

광주에 사는 한 재야인사는 모두의 말을 듣고서 힘있게 애조로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자주통일 사상과 민족대헌장방침이아말로 우리 민족이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 할 통일대헌장이다. 그분의 통일방침대로만 한다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위업은 꼭 성취된다. 때문에 우리 민족은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침을 받들어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김정일장군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이나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할 영원한 태양이시고 우리 겨레의 어머니이다.》

어제 그렇지 않았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주제의 조국통일사상과 가장 정확한 통일방침, 그이의 현명하고 세련된 명도는 통일애국의 앞길을 비추는 등대로 되고있으며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려오고 있었다. 하기에 조국통일위업의 밝은 전도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침을 관철하는데 있다는

것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잘 알게 된 남녀겨레들은 장군님의 뜻대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용감 떨쳐나서려는 의욕같은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의 민족대헌장 5대방침은 민족단합의 불멸의 총서로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에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가는 위대한 애국의 통일대헌장이다.》

《우리 민족성원모두가 편대련합을 민족대헌장을 위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로 된다는 것이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침이다. 참으로 민족자주의 힘을 통일애국의 동력으로 보시는 그분의 애국애족의 경륜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침을 받들 때 민족의 대단합도 조국통일로 성취할수 있다. 모두가 그분의 명도따라 통일투쟁에 매진하자.》

서울에서 활동하는 애국동지회가 조직한 《민족자주와 애국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자주를 키우시고 민족대헌장을 이루시어 이 땅에서 통일애국대업을 안아오실 위대한분신이라는 찬사와 칭송의 마음이 분출되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우리 민족을 제 일로 사랑하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자주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잘 알게 된 남녀겨레들은 장군님의 뜻대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용감 떨쳐나서려는 의욕같은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의 민족대헌장 5대방침은 민족단합의 불멸의 총서로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에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가는 위대한 애국의 통일대헌장이다.》

《우리 민족성원모두가 편대련합을 민족대헌장을 위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로 된다는 것이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침이다. 참으로 민족자주의 힘을 통일애국의 동력으로 보시는 그분의 애국애족의 경륜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침을 받들 때 민족의 대단합도 조국통일로 성취할수 있다. 모두가 그분의 명도따라 통일투쟁에 매진하자.》

서울에서 활동하는 애국동지회가 조직한 《민족자주와 애국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자주를 키우시고 민족대헌장을 이루시어 이 땅에서 통일애국대업을 안아오실 위대한분신이라는 찬사와 칭송의 마음이 분출되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우리 민족을 제 일로 사랑하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자주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

# 핵전쟁참화를 몰아오는 범죄적모의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을 위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움직임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얼마전 서울에서 있는 제27차 남조선미국 《안보정책수상회의》를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여기서서서 피뢰호전관들은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미국에 《동맹공조》를 구걸하는 태도를 부추기고 미국은 《공동대응》을 약속하였다. 회의를 위한 판본 《협정》이 체결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안보정책수상회의》는 미제와 남조선군부호전관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악화를 기화로 북침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기어로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기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모의판이다.

남조선보수계당은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요란히 떠들면서 그것은 피뢰자인듯이 보수당을 피우고있지만 저들은 대결과 전쟁의 길로 들달음치는 저들의 본색을 감추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연평도포격사건은 외세에 명을 건 남조선보수계당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남조선보수계당은 갈수록 민심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궁지에 빠져들고있으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은 총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보수계당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동족대결에서 찾고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외세

의 전쟁수인으로 전면에 나서는데도 서슴지 않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관들의 연평도일대에서의 군사적도발과 그후 피뢰들이 미국을 축으로 하여 일본, 남조선사회의 《3각군사동맹》 강화행동에 발벗고나서고있는것이 그에 대한 근거로 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안보정책수상회의》의 새 진정모의가 실천단계에 들어가고있는 사실이다. 피뢰호전관들이 또다시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여기에 《참관》의 명목으로 어중이떠중이들을 초청하는 놀음을 벌린것은 명백히 그 누구의 《도발》을 구실로 북침전쟁의 불집을 리뜨리기 위한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미제와 남조선피뢰호전관들이 저들은 연평도포격사건으로 조선반도에서 새 진정모의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쟁마치는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외세와의 공조와 동족대결을 남조선보수계당에 있어서 출로가 아니라 자멸의 길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거두되는 요구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의연히 힘에 의한 동족대결을 추구한다면 그 대가를 투옥치 치르게 될것이다.

김정욱

의 전쟁수인으로 전면에 나서는데도 서슴지 않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관들의 연평도일대에서의 군사적도발과 그후 피뢰들이 미국을 축으로 하여 일본, 남조선사회의 《3각군사동맹》 강화행동에 발벗고나서고있는것이 그에 대한 근거로 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안보정책수상회의》의 새 진정모의가 실천단계에 들어가고있는 사실이다. 피뢰호전관들이 또다시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여기에 《참관》의 명목으로 어중이떠중이들을 초청하는 놀음을 벌린것은 명백히 그 누구의 《도발》을 구실로 북침전쟁의 불집을 리뜨리기 위한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미제와 남조선피뢰호전관들이 저들은 연평도포격사건으로 조선반도에서 새 진정모의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쟁마치는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외세와의 공조와 동족대결을 남조선보수계당에 있어서 출로가 아니라 자멸의 길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거두되는 요구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의연히 힘에 의한 동족대결을 추구한다면 그 대가를 투옥치 치르게 될것이다.

김정욱

# 조국인민들의 행복에 넘친 모습, 밝은 미래

사회주의조국을 방망고있는 제임조진청년학생대표단 단장인 제임조진청년동맹 중앙성일위원회 부장 김용수는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조국인민들은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사회주의조국을 방망고있는 제임조진청년학생대표단 단장인 제임조진청년동맹 중앙성일위원회 부장 김용수는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조국인민들은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사회주의조국을 방망고있는 제임조진청년학생대표단 단장인 제임조진청년동맹 중앙성일위원회 부장 김용수는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조국인민들은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 대 공화국 대결정책의 철학을 요구

남조선의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수호를 위한 대학생선전단》이 10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뢰국과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체는 남조선 전지역의 대학생들이 전쟁반대, 평화실현운동을 벌리기 위해 함께 모였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리명박 《정권》의 대결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

면서 그의 철학을 요구하는데 대해 단체는 언급하였다.

하지만 현 《정권》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적행위를 고취하며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있다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새로 부임한 국방부장관 김관진이 령일 강도높은 말발로 온 민족을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현 《정권》의 《비핵, 개방,

3 0 0 0》파의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게 될것이라고 단체는 지적하였다.

단체는 조선반도의 군사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원칙은 당국이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철회하고 6. 1 5 공조선언과 10. 4 선언을 이행하며 북파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 호전관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최근 피뢰군부호전관들속에서 그 무슨 《보복》라령이 요란스럽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7일 피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전군주요지휘위원회》라는 서포사 《보복》나발을 불어대면서 《지체없이 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투형 야전부대를 육성하라.》고 《니하고 피뢰를 쫓아들이면 락이 될것이다.》고 《보복》이란 도적이 매를 드는 각의 장도적나발이다. 세상에 저의 장도에 들어와 란들을 부리는 뽀뽀스름날강도를 그냥 놔두면 주인이 어디 있었는가. 피뢰들은 방망이에 맞았건 용두에 맞았건 할말이 없으며 오히려 엄중한 주장도발사건을 일으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조건장상태에 몰아간대 대해 우리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사건의 진상이 이러할진대 오히려 리명박계당이 《보복》라령을 마구 쫓아대는 리유는

《보복》라령속에 숨겨진 흥계

다. 저어 리명박계당까지 나서 《서해 5도를 군사요새화하라》고 기업을 토하였다. 남조선호전관들의 이러한 추태는 그야말로 불맞은 이리매를 방불케 하는것이였다.

《피뢰군부호전관들이 령일 떠들면서 《보복》이란 도적이 매를 드는 각의 장도적나발이다. 세상에 저의 장도에 들어와 란들을 부리는 뽀뽀스름날강도를 그냥 놔두면 주인이 어디 있었는가. 피뢰들은 방망이에 맞았건 용두에 맞았건 할말이 없으며 오히려 엄중한 주장도발사건을 일으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조건장상태에 몰아간대 대해 우리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사건의 진상이 이러할진대 오히려 리명박계당이 《보복》라령을 마구 쫓아대는 리유는

다. 저어 리명박계당까지 나서 《서해 5도를 군사요새화하라》고 기업을 토하였다. 남조선호전관들의 이러한 추태는 그야말로 불맞은 이리매를 방불케 하는것이였다.

《피뢰군부호전관들이 령일 떠들면서 《보복》이란 도적이 매를 드는 각의 장도적나발이다. 세상에 저의 장도에 들어와 란들을 부리는 뽀뽀스름날강도를 그냥 놔두면 주인이 어디 있었는가. 피뢰들은 방망이에 맞았건 용두에 맞았건 할말이 없으며 오히려 엄중한 주장도발사건을 일으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조건장상태에 몰아간대 대해 우리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사건의 진상이 이러할진대 오히려 리명박계당이 《보복》라령을 마구 쫓아대는 리유는

다. 저어 리명박계당까지 나서 《서해 5도를 군사요새화하라》고 기업을 토하였다. 남조선호전관들의 이러한 추태는 그야말로 불맞은 이리매를 방불케 하는것이였다.

《피뢰군부호전관들이 령일 떠들면서 《보복》이란 도적이 매를 드는 각의 장도적나발이다. 세상에 저의 장도에 들어와 란들을 부리는 뽀뽀스름날강도를 그냥 놔두면 주인이 어디 있었는가. 피뢰들은 방망이에 맞았건 용두에 맞았건 할말이 없으며 오히려 엄중한 주장도발사건을 일으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조건장상태에 몰아간대 대해 우리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사건의 진상이 이러할진대 오히려 리명박계당이 《보복》라령을 마구 쫓아대는 리유는

다. 저어 리명박계당까지 나서 《서해 5도를 군사요새화하라》고 기업을 토하였다. 남조선호전관들의 이러한 추태는 그야말로 불맞은 이리매를 방불케 하는것이였다.

《피뢰군부호전관들이 령일 떠들면서 《보복》이란 도적이 매를 드는 각의 장도적나발이다. 세상에 저의 장도에 들어와 란들을 부리는 뽀뽀스름날강도를 그냥 놔두면 주인이 어디 있었는가. 피뢰들은 방망이에 맞았건 용두에 맞았건 할말이 없으며 오히려 엄중한 주장도발사건을 일으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조건장상태에 몰아간대 대해 우리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사건의 진상이 이러할진대 오히려 리명박계당이 《보복》라령을 마구 쫓아대는 리유는

# 외세에 대한 구걸놀음을 단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13일 문평을 발표하여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동맹구걸에 피눈이 되어 돌아치는 리명박적외세를 단죄하였다.

문평은 이날 리명박이 그 무슨 라조연설이라는데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추가협상에서 자동차부분에 대해 《양보할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리익을 얻고자 한다.》고 하니 뉘나 하는 껌변을 늘어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가 그동안 금융과 농업 등 분야에서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자동차부분에서 큰 리익이 있기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떠들어왔다고 문평은 밝혔다.

문평은 리명박이 이번엔 인정하였듯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남조선이 얻을수 있는 리익은 완전히 없이지고 오히려 대미종속의 심화만 가져왔다고 비난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라면자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강한 경제동맹이

문평은 리명박이 이번엔 인정하였듯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남조선이 얻을수 있는 리익은 완전히 없이지고 오히려 대미종속의 심화만 가져왔다고 비난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라면자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강한 경제동맹이

# 나 이 제 리 아 단 체 성 명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연속소동을 규탄하여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피뢰계당은 《천안》호사건을 남조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속을 감행한데 이어 연평도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연속소동을 규탄하여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피뢰계당은 《천안》호사건을 남조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속을 감행한데 이어 연평도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연속소동을 규탄하여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피뢰계당은 《천안》호사건을 남조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속을 감행한데 이어 연평도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연속소동을 규탄하여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피뢰계당은 《천안》호사건을 남조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속을 감행한데 이어 연평도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연속소동을 규탄하여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피뢰계당은 《천안》호사건을 남조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속을 감행한데 이어 연평도

# 반민족적의 친미 동맹 강화책동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거쳐오면서 남조선보수계당은 남조선의 《동맹》관계가 지금처럼 좋아진것은 없었다고 꽤 혹독하게 고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꼬물한 민족적자존심도 없는 피뢰들이 상건의 옷자락에 매달려서서 반역적, 나절한 구걸질을 한 결과 이루어진 반공화국동맹일뿐이다.

얼마전 리명박적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경제보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크다.》고 하니 남조선미국 《동맹》이 《한단계도약》하였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이것은 보수계당이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강화를 위해 남조선시장을 통해 조 팔아먹었다는 것을 방증하는것이였다.

남조선보수계당은 미국이 없는 단 한시도 생존할수 없는 추악한 매국역적집단이다. 그들은 정지, 경애, 군사적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정치적전범을 부지하기 위해 상전과의 《동맹》강화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그 예속적이며 치욕스러운 《동맹》을 위해 보수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거러걸없이 팔아버리고있다.

집권초기부터 미국과의 《동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거쳐오면서 남조선보수계당은 남조선의 《동맹》관계가 지금처럼 좋아진것은 없었다고 꽤 혹독하게 고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꼬물한 민족적자존심도 없는 피뢰들이 상건의 옷자락에 매달려서서 반역적, 나절한 구걸질을 한 결과 이루어진 반공화국동맹일뿐이다.

얼마전 리명박적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경제보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크다.》고 하니 남조선미국 《동맹》이 《한단계도약》하였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이것은 보수계당이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강화를 위해 남조선시장을 통해 조 팔아먹었다는 것을 방증하는것이였다.

남조선보수계당은 미국이 없는 단 한시도 생존할수 없는 추악한 매국역적집단이다. 그들은 정지, 경애, 군사적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정치적전범을 부지하기 위해 상전과의 《동맹》강화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그 예속적이며 치욕스러운 《동맹》을 위해 보수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거러걸없이 팔아버리고있다.

집권초기부터 미국과의 《동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거쳐오면서 남조선보수계당은 남조선의 《동맹》관계가 지금처럼 좋아진것은 없었다고 꽤 혹독하게 고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꼬물한 민족적자존심도 없는 피뢰들이 상건의 옷자락에 매달려서서 반역적, 나절한 구걸질을 한 결과 이루어진 반공화국동맹일뿐이다.

얼마전 리명박적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경제보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크다.》고 하니 남조선미국 《동맹》이 《한단계도약》하였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이것은 보수계당이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강화를 위해 남조선시장을 통해 조 팔아먹었다는 것을 방증하는것이였다.

남조선보수계당은 미국이 없는 단 한시도 생존할수 없는 추악한 매국역적집단이다. 그들은 정지, 경애, 군사적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정치적전범을 부지하기 위해 상전과의 《동맹》강화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그 예속적이며 치욕스러운 《동맹》을 위해 보수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거러걸없이 팔아버리고있다.

집권초기부터 미국과의 《동

# 민심의 규탄을 받는 반역 《정권》

《정권》은 오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전대 정기대회헌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6. 1 5 공조선언과 함께 시작된 새 천년도 어떤 10년이 흘렀다. 그러나 이날까지의 여전히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리명박 《정권》이 틀어선 후 이날까지의 모든 시제는 거꾸로 가고있다. 경제 발전적인 남북관계가 전쟁정세에 처하고있고있다.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정권》은 오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전대 정기대회헌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6. 1 5 공조선언과 함께 시작된 새 천년도 어떤 10년이 흘렀다. 그러나 이날까지의 여전히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리명박 《정권》이 틀어선 후 이날까지의 모든 시제는 거꾸로 가고있다. 경제 발전적인 남북관계가 전쟁정세에 처하고있고있다.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정권》은 오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전대 정기대회헌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6. 1 5 공조선언과 함께 시작된 새 천년도 어떤 10년이 흘렀다. 그러나 이날까지의 여전히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리명박 《정권》이 틀어선 후 이날까지의 모든 시제는 거꾸로 가고있다. 경제 발전적인 남북관계가 전쟁정세에 처하고있고있다.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리명박 《정권》이 틀어선 후 이날까지의 모든 시제는 거꾸로 가고있다. 경제 발전적인 남북관계가 전쟁정세에 처하고있고있다.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정권》은 오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전대 정기대회헌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6. 1 5 공조선언과 함께 시작된 새 천년도 어떤 10년이 흘렀다. 그러나 이날까지의 여전히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리명박 《정권》이 틀어선 후 이날까지의 모든 시제는 거꾸로 가고있다. 경제 발전적인 남북관계가 전쟁정세에 처하고있고있다.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리명박 《정권》이 틀어선 후 이날까지의 모든 시제는 거꾸로 가고있다. 경제 발전적인 남북관계가 전쟁정세에 처하고있고있다.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정권》은 오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전대 정기대회헌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6. 1 5 공조선언과 함께 시작된 새 천년도 어떤 10년이 흘렀다. 그러나 이날까지의 여전히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리명박 《정권》이 틀어선 후 이날까지의 모든 시제는 거꾸로 가고있다. 경제 발전적인 남북관계가 전쟁정세에 처하고있고있다.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리명박 《정권》이 틀어선 후 이날까지의 모든 시제는 거꾸로 가고있다. 경제 발전적인 남북관계가 전쟁정세에 처하고있고있다.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정권》은 오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전대 정기대회헌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6. 1 5 공조선언과 함께 시작된 새 천년도 어떤 10년이 흘렀다. 그러나 이날까지의 여전히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리명박 《정권》이 틀어선 후 이날까지의 모든 시제는 거꾸로 가고있다. 경제 발전적인 남북관계가 전쟁정세에 처하고있고있다.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리명박 《정권》이 틀어선 후 이날까지의 모든 시제는 거꾸로 가고있다. 경제 발전적인 남북관계가 전쟁정세에 처하고있고있다. 민중들은 득세의 그늘에서 숨어있고있다. 평화와 통일의 숙원도 실현되지 못했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

# 백승의 령장을 모시여 앞날이 창창한 선군조선

오늘 진보적인류는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백승의 령장을 모시여 선군조선의 앞날을 창창하다고 격조 높게 제창하고있다.

내일의 주체연구소 소장은 세계정치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계시는 김정일각하라는 진보적인류가 가장 존경하고 우러르는 위대한 정치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상징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그런가 하면 내발삼문 《머저트》는 《세계 제1명인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세계의 판도는 조선의 김정일각하에게 쏠리고있다. 그 비결은 바로 그의 정치철학과 실적이 위대하고 당력과 의지가 강하기때문이다. 세계의 곳곳에서 《김정일각하는 21세기의 태양》이시라는 호모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배를위해 서기장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선군정치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라는 강력한 보검으로 승리를 이룩하시는 김정일명도자는 사상사적으로 영도의 가장,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위대한 수호자, 백전백승의 강령의 령장이시라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포악무도한 미국이 조선인민에게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것은 바로 조선인민이 선군명장 김정일각하를 령도자로 모시고있으며 그의 손길아래 강화발전된 불패의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그의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는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는 힘의 원천으로, 조선의 창창한 앞날을 기약하는 승리의 담보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선군명장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칭송하는 목소리는 그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살을 맞으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더욱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최근 메히고 김일성주의연구원에서는 불제된 제49호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전을 모시고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무력관》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군술이 그토록 세계의 관심사로 되는것은 어디에 기인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무장력에 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견해와 판점이 신성하고도 위대함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

인중심의 무력관을 지니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시어 군건설과 활동에서 군인대중이 기본이며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군인대중에게 있다는 독창적인 무력관을 정립하시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총대의 위력은 사상과 신념의 위력이다.》 《혁명군대가 사상사업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사업을 놓치면 망한다》는것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확증된 진리이다.》 《전쟁의 으뜸을 결정하는것은 그 어떤 무기나 군사기술이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상적각오와 준비정도이다.》 라는 명언들을 통하여 그의 무력관이 어떤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리해할수 있다.

특출한 무력관을 지니신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모신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길이 영웅명철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살에 즈음하여 백두산제소초전선친선협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명도》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명도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지이다》에 대

한 독보적으로 진행되었다. 독보회에서 백두산제소초전선친선협회 위원장인 제소초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혁명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선군의 기치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그의 선군혁명명도는 조선의 혁명무력을 불패의 강군으로 발전시켰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조선은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격음이다.》 《혁명군대가 사상사업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사업을 놓치면 망한다》는것을 높이 평가하며 자기의 존엄을 높이 떨치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선군의 기치높이 파관한 투쟁을 벌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진보적인류가 높이 칭송하는 위대한 선군명장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령자가 출기차게 흐르는것이 우리 조국의 위창찬한 앞날이 펼쳐지고있는 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모후된 만마중동의 학파학연구소 소장은 최근에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장구한

# 위험천만한 재침군사작전의 도약대

지난 17일 일본정부는 새 《방위계획대강》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일본이 군사정책에 관한 문건을 작성 발표한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방위계획대강》은 그 내용과 성격, 목적에 있어서 극히 위험한 문서이다. 그것은 본질상 해와 침략을 노린 일본 《자위대》의 공격적능력들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기도의 산물이다. 특히 여기에에는 해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 무력을 기본으로 한 기동타격무력을 조선반도와 중국과 가까운 일본의 남부지역에 집중 배치하며 그것을 통해 제3차 세계 대전의 발발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자위대》의 《전수방위전략》을 포함한 공격적전략도 제대로 수정하였다. 새 《방위계획대강》은 일본반동들의 제침군사작전의 설계도, 도약대이다.

더욱 엄중한것은 일본반동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의 그 무슨 《위협》대처에 대하여 주목한것이다. 일본이 그 누구의 《위협》을 받고있다는것은 완전한 허구이며 날조이다. 우리 나라는 일본에 그 어떤 《위협》도 가하는것이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건하고 군사적충돌이 일어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한 대처를 명시하고 《자위대》의 기동타격무력을 일본남부지역에 집중배치하기로 한것은 이 《대강》이 끝 우리 나라와 중국을 겨냥한 제침군사작전을 합법화 하기 위한 전쟁문서이런것을 말해준다.

이리 짜놓은 조선전쟁기본에 따라 《자위대》의 주역은 조선반도와 가까운 서부일본지역에 집중배치하는 한편 삼각작전 등 공격적전술을

들을 끊임없이 벌려온 일본이 새 《방위계획대강》을 결정한다는 명백히 조선제침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다 그 목적이 있다. 얼마전 일본수상 간 나오토가 조선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 무력파견에 대해 운운한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언동이다. 일본수상은 군국주의무력의 총사령관이다. 《유사시》에 《자위대》 무력을 총동원할 특권을 가지고있는 그가 조선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작전》에 대하여 내놓고 주장한것은 《자위대》를 통해공공무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일본은 《거류민보호》를 구실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인 《구출》의 미명하에 제침작전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일본 《자위대》는 본질에 있어서 해외침략을 위하여 조직된 군국주의 무력이다. 일본인 《구출》이 아니라 하는것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의 침략적목적에 가리우기 위한 꾀에 지나지 않는다.

새 《방위계획대강》결정과 조선반도 《유사시》의 《자위대》 무력파견기도는 우리 나라와 중국만이 아닌 아시아체제를 노린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위험천만한 전쟁준비의 발로이다. 일본은 더는 《평화국가》가 아니다. 아시아의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의 하나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시아인민들에게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서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한사코 실현 하려고 방불하고있다.

하지만 그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새 《방위계획대강》을 결정한 그들이 그 무슨 《유사시》 일본인 《구출》이라는 구실밑에 《자위대》 무력을 발동하여 제침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자신의 파멸을 불러오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반동들의 제침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그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무자비한 불타박을 안길 만능의 태세를 갖추고있다.

김 종 손

# 조선은 정의의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몽골인사담화 발표**

몽골주체연구원 위원장 드. 불다가 10일 《21세기는 조선인민의 승리와 영광의 세기이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이 반제투쟁과 반강조국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온데 대하여 언급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진보적인민들을 더욱 단결시켰기이다.

주체의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의로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다.

# 주체사상연구소 조란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주체사상연구소 조란자니아 전국조정위원회 년차총회가 11일 드르 에스 살람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전국조정위원회와 각 연구소지들의 올해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다음해에 진행할 활동계획이 토의되었다.

#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단죄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브라질정부대표가 1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단죄하였다.

일본이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의 2단계 리행기한을 설정하는것을 반대해나선것과 관련하여 그는

#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니미비아가 9일 정치, 무역, 문화분야에서 호상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8일 로씨야와 가자호스만은 단일한 지역방위공체제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반제자주, 련대성의 기치를 들고

얼마전 제20차 이베로-아메리카수뇌자 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이베로-아메리카국가기구 성원국들의 국가 및 정부수뇌들이 참가하였다. 《교육과 사회발전》의 주제밑에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을 발전시키고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마르 델 플라타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는 앞으로 10여년간 1000억US\$의 투자를 교육사업에 투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대중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회의중점은 교육사업이었다. 도미니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교육과 경제발전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은 사회발전을 위한 근본 담보로 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2015년전으로 지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하며 교육의 불평등을 없애는 국가정책을 발전시키고 교육제에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는 등 교육사업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의지와 결심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번 회의에서 특별히 주목을 끈것은 미국의 과묵치한 주권침해행위가 규탄배격을 받

# 서방나라들의 제안을 배격

에리트레아와 이호마드 아부 알 게이트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서방나라들의 제안을 배격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아프리카-유럽연합 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공

# 빈궁청산을 호소

남아프리카대륙 자코브 게틀레이올메키사 주마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빈궁청산을 위해 노력할것을 아프리카나라들에 호소하였다.

그는 풍부한 토지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대륙에서는 빈궁청산이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고 하면서 이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 실현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이 공장에서는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2 000만bbl 이상의 원유를 정제함으로써 연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공장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18만 2 000여bbl의 원유를 더 정제하여 생산능력을 제단식으로 확장하게 된다.

성업에서는 앞으로 5년동안 더 많은 메탄가스못을 건설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가정들의 수를 130만세대이상으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유연정제능력확장 추진

구마의 세련부고에고르수정정제장에서 앞으로 하루 정제능력을 현재의 6만 5 000bbl로부터 15만bbl로 확장할

에 비해 14% 줄어들었다.

철광석생산 증가

이란에서 올해 3월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8개월동안에 1 790만t의 철광석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5% 늘어난것으로 된다.

에이즈방지노력

앙골라에서 에이즈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전국의 120개 구역들에 에이즈진료소를 내오고 그것을 신속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들속에서 에이즈방지를 위한 선전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미군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항의

인디아와부싱 에스. 엠. 크리슈나가 13일 자기 나라 외교관들에 대한 미국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에리트레아 인민회의의 대외관계 위원회위원장인 얼마전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음모적동을 폭로, 규탄하였다.

최근 나라에서 그리스도교인들과 이슬람교도들간의 충돌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관련하여 그는 거기에 이스라엘침보기관이 관여했다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이 에리트레에서 공회권자를 파란시키고 내부를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서방의 음모실현에 앞장서고있다고 단

# 미군기지 반대기운 고조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미군기지 반대기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얼마전 이 나라 교도통신이 오키나와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군기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였다.

《에리트레아 인민회의가 팔만 고원과 동부부드스에서의 이스라엘군정복을 앞세워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책동을 배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책동을 계속 매여달리고있다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팔레스타인인들을 반대하는 대담상륙탄핵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서 근본문제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자유와 해방을 쟁수하고 회담을 통해 아랍나라들과의 영토문제를 타당

# 배격받는 이스라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에리트레아 인민회의의 대외관계 위원회위원장인 얼마전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음모적동을 폭로, 규탄하였다.

최근 나라에서 그리스도교인들과 이슬람교도들간의 충돌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관련하여 그는 거기에 이스라엘침보기관이 관여했다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이 에리트레에서 공회권자를 파란시키고 내부를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서방의 음모실현에 앞장서고있다고 단

# 시 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최근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로즈던체들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시위에는 10만명 이상의 각계층 인원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이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인상과 일자리 축소 등 부당한 조치들을 취하려 하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호산 분출

에파도르에서 4일 풍구라우 화산이 분출하였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많은 화산재와 용암이 쏟아내었다.

정부에서 화산주변지역 주민들을 안전장 조치들을 취하려 하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힘있게 추진되는 자연피해복구사업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이상기후현상은 올해에 중국에도 막대한 자연 재해를 몰아왔다. 이로 하여 중국에서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다.

간혹성 주류에서 있는 특대형산사태를 비롯하여 길림성, 룡양성, 허남성 등 전국적으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도 수천만ha의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저해를 주고있다.

이로부터 중국당과 정부는 올해에 자연재해를 가치고 사회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쏟았다. 지난 8월 중국의 호급도주성과 은가보총리는 장마철농물피해방지사업과 관련한 중요지시를 제발하였다.

중국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현지에서 재해복구사업을

# 올해 사상 최고기온 기록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평균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는 조사자로를 인용하여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세계평균기온이 14.5℃로서 기상관측 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주에서 《전국근로 및 가물피해방지, 주곡피해구제총화, 포상대회》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대회에는 중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성과 신강생산건설병단, 국가근로 및 가물방지총지휘부 총지휘관 1회 향옥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호급도주성과 은가보총리의 위임에 따라 해남성의 재해지역에 나가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국무원회의와 책임인들, 국가근로 및 가물방지의 일선에서 분투하고있는 광범한 간부들과 근로, 중국인민해방군 장병들, 무장경찰부대 장병들, 공안경찰들을 위문하고 재해정형을 료해하면서 피해구제 및 복구건설사업을 지도하였다.

오를 중국당과 정부가 취한 조치들과 일군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하여 펼쳐나선 군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으며 피해복구사업에서 큰 성과가 이룩하였다고 한다.

중국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현지에서 재해복구사업을

# 농고 과학을 중시하는 당과 정부의 집권리념과 지도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며 힘을 집중하여 큰일을 해내는 사 회주의제도의 정치적우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중국의 특색 있는 물질기술적토대의 힘을 다시금 과시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애국주의와 사회대정신의 위력을 떨치고 재해를 방지하고 감소시키는 데서 수리공정의 커다란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인정하였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서세후는 군대대표들을 만났다. 그는 호급도주성과 은가보총리,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지도간부들을 대표하여 중국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들에서 배출된 전국근로 및 가물피해방지, 주곡피해구제 선진단체들과 선진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군대대표들에게 전군의 부대들은 표창

을 받은 선진단체들과 선진인민들을 따라배우는 활동을 광범히 벌려 당의 지휘에 부응하는 확고한 신념을 배우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자기를 서슴 없이 바칠줄 아는 고고한 품성을 따라배우며 과학을 중시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정신과 완강하고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선진정신을 따라배우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중국에서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난 11월 중순 중국공무원 10여만 명이 전국 각처에서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치고 사회경제를 위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신 경 석

